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치유 제목 : 옷 가에 손을 댄 여인 성경: 마가복음 5장 25-34절

25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26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27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려라

29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0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1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예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32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

33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이다 (막5:25-34)

44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술;치치트;장식 꽃)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눅8:44)

– 치치트;술, 통옷의 네 귀퉁이에 술을 만들어 달고 청색끈으로 묶도록 하였으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뜻이 담겨있다.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

– 그녀는 오랫동안 아팠다.

– 그녀는 병 때문에 가산을 탕진하였다. 짐 한 채든지, 물려받은 전답이든지 할 것이다.

– 수많은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나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그 모든 처방들이 한결같이 이 여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엉뚱한 윤법이 되었다. (병에 걸리면 귀가 앓아진다. 병에 걸려서 죽기 보다는 귀가 앓아서 죽는 경우가 있다.

{

요즘 암 처방이 비슷하다.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요령’ 저자 ‘곤도 마코토’(近藤誠·63) 일본 게이오(慶應)대 의과대학방사선과 강사.

“건강하던 사람도 암 진단 받으면 쉽게 사망…

현대의학으로 완치 못해 치료는 고통만 가중”

‘암은 방치해두는 게 낫다.

항암제는 효과가 없다.

건강검진은 백해무익하다.’

이 책엔 의료상식을 뒤집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 출판불황 속에서도 100만부가 넘게 팔리며

‘암에는 진짜암과 유사암이 있어 유사암은 방치해도 진짜암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진짜암은 현대의학으로 완치할 수 없으니 수술과 항암제 치료를 받아봐야 고통만 가중시키고, 생명을 단축시킬 뿐이다.

어느 쪽이건 수술을 하지 않는 쪽이 고통이 적고 오래 산다.’

}

여러분은 암에 걸리지 마세요. 걸리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무슨 소문인가? 치유에 대한 소문이다. 그는 위대한 선지자인가?

– 그는 더 이상 기력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는 젊지도 않았다.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는데 죽는 것이 더 어렵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병을 치유받고 싶었다.

(병은 운명이 아니라, 빨리 치유하라는 신호이다. 아픔의 고통은 곧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1. 빨리 고치라는 신호이다. 2. 죽을지도 모르니 죽음을 예비하라는 뜻.)

-그녀는 비로소 깊이 회개하게 되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던 날들을 부끄러워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얼마나 복된가?

-그녀는 회개하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다.

-그러나 그녀는 병이 부끄러웠고, 자신의 처지가 너무 부끄러웠다.

-그녀는 주님께 부탁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아마도 벼刹한 가정의 아내였을 것이다. 그녀는 예절을 갖추며 살았다. 응당 댓가를 지불하며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여력이 없다.

-그녀는 망설였다. 사람들도 너무 많았다.

-그러자 그녀의 눈에 띠는 것이 있었다. 예수님의 곁옷 가에 달린 술이 보였다. 그 파란색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율법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말씀이 생각났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파란색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약속을 추억하게 하는 색깔이다.

{

청색은 자비와 사랑을 뜻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색.

{특히 청색은 범궤를 덮었던 보자기 색.

{또 청색은 진설병을 덮었던 보자기 색.

{진설병을 위한 기구들은 홍색 보자기로 덮음.

{홍색은 주의 보혈을 상징. 즉, 말씀

을 지키는 것에 실패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속죄를 먼저 경험하고 말씀을 지키라는 뜻})}

따라서 청색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명령의 추억등을 기억나게 하는 색이다.})

자색은 권위와 위엄,

홍색은 희생과 속죄

그리고 베실, 즉 흰색은 순결과 순수를 각기 상징한다.

})

– 그 때 그 술을 만지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다. 그 술을 만지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율법에 대한 철저한 결심을 하고 그 술을 만졌다. (하필이면 그 술을 만지려고 했을까? 그녀는 그 술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다는 뜻.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결단을 의미하였다.)

–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땀흘리며 <꼭 땀이 나야 하는 것은 아님> 지키는 것. 내가 손해보면서 <꼭 손해만 나는 것은 아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세속적으로 가까운 것은? 선물을 주는 것, 기분 맞추어 주는 것,

치유는 예수님이 명령하기도 전에 일어났다. 왜?

–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 그녀는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결단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단의 행위로 예수님의 곁옷을 만졌는데 이것은 영적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도체가 완성되었다는 뜻.

– 그래서 그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흘러간 것이다.

– 현대는 병들기도 힘들고, 약도 만가지가 넘는다.

– 그런데도 여전히 병원에는 환자가 가득.

– 이유; 대부분의 생활 습관병. 해로운 습관을 끊어내는 의지 나약.

과민 반응, 과잉 진료, 괴로운 치료과정은 여전함.

– 치유; 자연치유, 하나님의 도우심, 믿음. 치유에 믿음이 가장 중요함. 안 믿어도 낫겠지만 비용, 허송세월, 고생등 치루어야 할 댓가가 크다.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 치유의 핵심; 건강한 습관(환경)으로의 변화.– 말씀에 대한 헌신이 핵심.(경건생활–예방에 효과적.)

<찬양예배>

주제 : 제목 : 말씀 :